

---

# NYU 유학생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법책

김도현

---





안녕하세요. "NYU\_유학생"입니다. 우선 이렇게 새로운 매체인 책을 통해 많은 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좀 떨리네요. 걱정과 흥분 섞여 있는 듯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죠.

현재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디자인

한 영어학습 방식을 글과 영상 등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직업은 "뉴미디어 학습 디자이너"입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학습을 최적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학 가기 전엔 컴퓨터와 반도체 공학을 전공해서 엔지니어로 미국회사에서 3년 정도 일했는데요. 2012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맨해튼으로 떠났습니다.

New York University에서 영어교육 +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연구했죠. 뉴욕에서 보낸 3+1년간의 학문적 배움, 그리고 미국 스타트업에서 일한 사회경험을 영어공부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영어를 대하며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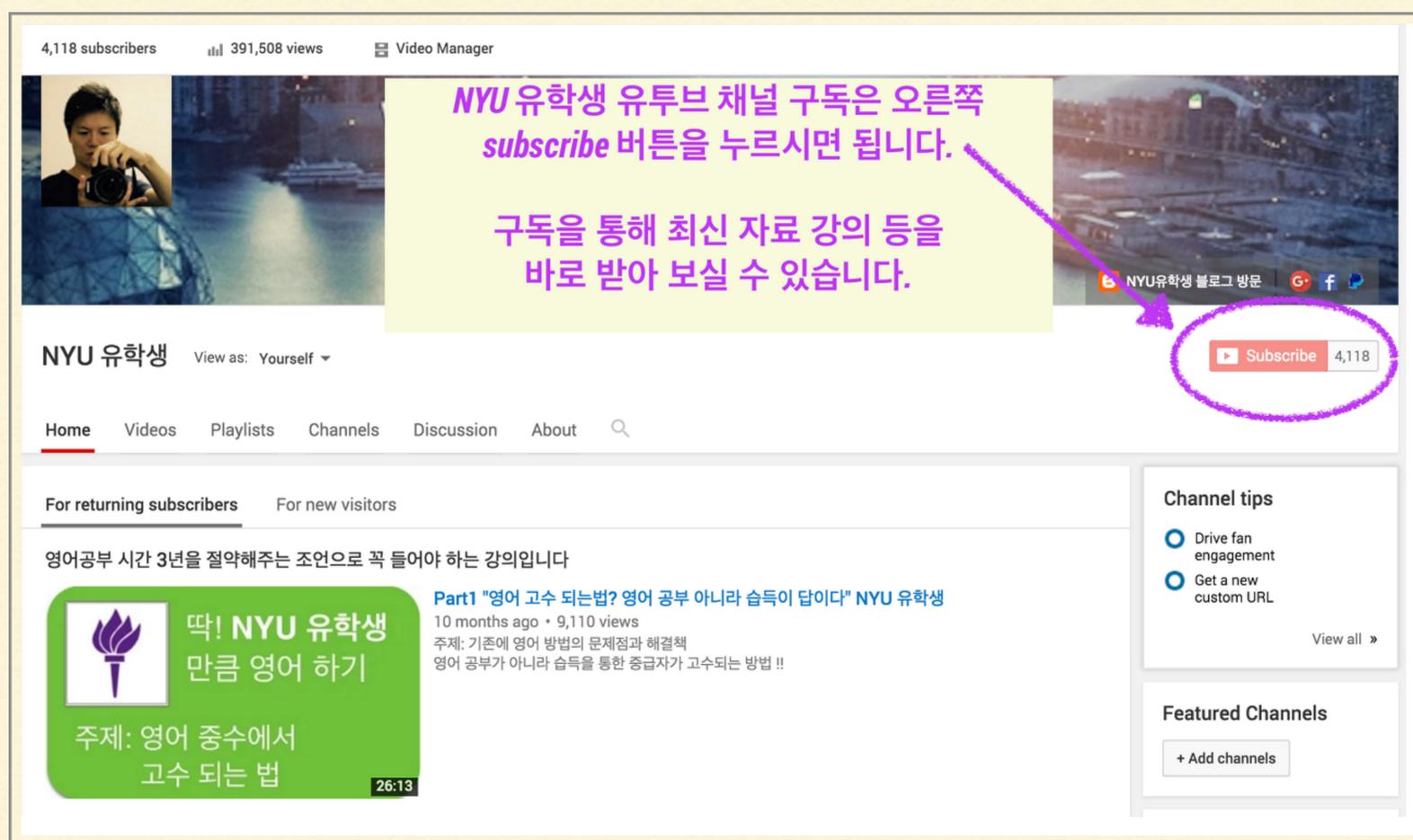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나 좋은 의견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 등을 통해 알려주세요. 서로의 지식을 확장하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 보시는 “NYU 유학생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법책 강의”를 포함 다양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또는 “**NYU 유학생**”을 검색하세요.

blog 방문:

<http://dmdlnyu.blogspot.kr>

Youtube 방문:

<https://www.youtube.com/c/nyu유학생>



---

## Content A

Introduction .....	5
Chapter 1 영어를 잘하기 위한 파이널 판타지3 그리고 해리포터...	18
Chapter 2 트위터에서 만난 현재진행 V-ing너 좀... 낮설다.....	30
●현재 진행 Review.....	41
Chapter 3 사람은 당신의 말Say이 아니라 행동Do을 믿는다.....	48
●일반동사 V Review.....	56
Chapter 4 영어에서 “적당히”와 “거시기”를 알아보자.....	66
Chapter 5 역사적 사실을 통해 배우는 동사과거.....	90
●과거 동사 Review.....	94
Chapter 6 왜 영어로 프리토킹이 힘들까요?.....	99
Chapter 7 한장의 흑백사진과 같은 느낌 과거진행.....	104
●현재, 과거, 그리고 과거진행 Review.....	110
Chapter 8 영어고수가 되기 위한 구글링.....	116
Chapter 9 뉴욕 3년차에 현재완료를 처음 사용해 보다.....	131
●현재완료 Review.....	147
Chapter 10 영어공부를 10년간 쪽 해오고 있습니다.....	153
●현재완료 진행 Review.....	157
Chapter 11 과거완료는 시간을 거스르는 자.....	168
●과거완료 Review.....	178

---

## Content B

Chapter 12 과거완료 진행, 한편의 흑백 영화를 보는 느낌.....	187
●과거완료 진행 Review.....	191
Chapter 13 뉴욕에서 진짜 원어민을 만나다.....	200
Chapter 14 난 사실 영어 Will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218
●조동사 will Review.....	237
Chapter 15 영어의 연금술, 미래 + 완료 + 진행을 섞어보자.....	246
●미래 진행 & 미래완료 Review.....	251
Chapter 16 Can은 be able to와 다르다.....	256
●조동사 can & be able to차이 Review.....	268
Chapter 17 Could, 과거가 아니라 미래와 만나다.....	277
●조동사 could Review.....	289
Chapter 18 상대방을 배려해 will이 아니라 would를 사용하자...296	
●조동사 will & would Review.....	305
Chapter 19 왜 영어는 배웠어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할까.....	313
Chapter 20 왜 might은 되고 may는 안되는가.....	323
●조동사 may & might Review.....	344
Chapter 21 우리가 몰랐던 조동사 should의 느낌.....	355
●조동사 should Review.....	361
책을 마치며, 공부는 왜 하는가.....	372

---

“미친 짓이란: 똑같은 짓만 계속 하면서  
언젠간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바라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Insanity: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Albert Einstein

---

이 책은 “모두”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전통적인 제2외국어 습득이론과 스마트 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하는 뉴미디어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New York에서 4년 동안 유학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저만의 방식으로 녹여내 만든 새로운 “류”의 학습 방식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을 통해 이 책이 독자 자신에게 맞는 “류”의 자료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사용을 권합니다.

---

1. 미국 드라마를 영어로 “soap opera”라고 배웠다면 반드시 이 책을 반드시 보세요. 만약, 미국 드라마를 영어로 “TV shows”라고 배웠다면 이 책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

2. “could”가 “can”의 과거라고만 배웠다면 반드시 이 책을 보세요. 만약 could 가 현재는 물론 심지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다면 이 책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

3. 지금까지 영문법을 배우다가 도중에 포기해본 적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보세요. 만약, 지금까지 한 번도 영문법을 배우다 포기한 적이 없다면 이 책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

4. 지금까지 영어를 시험공부로만 배운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보세요.  
만약, “아마존 베스트 셀러, 트위터, 애플키노트, 스탠퍼드 강의”같이  
실제 사용되는 진짜영어(authentic English)를 통해 배웠다면 이 책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

5. 지금까지 영어를 수학 공식이나 언어학(linguistics)처럼 규칙을 나열하듯이 사용해 왔다면 반드시 이 책을 보세요. 만약, 단어들이 담고 있는 고유 감정을 느끼고 전달 할 수 있도록 의미중심으로 배웠다면 이 책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

6. “can = be able to”와 같다고 배운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보세요.  
만약, “can과 be able to”의 차이뿐 아니라 조동사들이 지니고 있는  
기능과 그 느낌의 차이를 알고 있다면 이 책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

7. 언어학 전공자가 아니라 공학이나 디자인 전공자가 알려주는 영어를 배운 적이 없다면 반드시 이 책을 반드시 보세요. 언어 습득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만나게 될 겁니다.

---

7가지의 질문을 통해 독자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사실 제가 앞서 드린 질문을 왜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중급자세요? 고급자세요?” 같은 질문을 통해 실력이나 성향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부분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게시거나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실력을 판단하고 계셨던 겁니다. 학원에서 받은 레벨을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시거나, 토익 900점 넘었으니 고급자라고 믿고 계셨죠.

이렇게 제각각이고 볼 확실한 레벨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도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평생 거의 쓸 일 없는 표현이나 문법 사항 몇 개 외웠는지 측정해서 판단할 필요 없이, 실제 사용하기 위한 언어로서 영어를 배운 경험을 가지고있는지 확인하길 바랐습니다. 또한, 이 책은 영어 수준과 관계없이 영어학습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어 레벨이 아닌 학습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자료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에 해당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이 책은 문법 교재가 아닙니다. 영문법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통해 “새로운 류”의 학습방식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영어”를 배우도록 설득하기 위한 책입니다.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어를 배워 하고자 하는 활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영어를 사용하고자 했던 유학생 시절을 생각해보죠. 영어를 그냥 책에 적어놓고 공부할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유학 중 실전에서 사용하려고 하니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문법 규칙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틀렸습니다. 문법 교재에 나온 규칙들을 모두 외우고 나서도 여전히 영어는 잘 들리지 않았고 유창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규칙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반복성을 보이는 것, 즉 패턴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는 변화가 매우 심해서 하나의 법칙으로 정해 놓고 외워버리면, 금세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문장들을 발견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유학 기간 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사실 해결책은 영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를 언어로서 대하지 않고 수학처럼 규칙의 나열로 생각한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문법도 각각의 의미와 함께 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어만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었고 문장을 외우지 않아도 내 생각을 그리고 감정을 영어라는 언어 그릇에 담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를 들은 땐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와 감정을 함께 담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여기서 문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존에 언어학처럼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해당 언어가 가진 특징을, 그리고 그 그러한 특징을 갖게된 이유를 함께 고민할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어를 더 이상 규칙의 나열이 아닌,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로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 책의 주요 목적은 영어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접근방식을 통해 우리가 흔히 정해진 규칙의 나열이라고 생각하던 영문법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16

**Can은 be able to와 다르다.**

**:조동사 can과 be able to의 차이**

---

제가 영어를 배울 때(2000년 초반까지)는 “can = be able to”라고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휘를 가르치는 분도 “can = be able to”라고 칠판에 적으며 노트 필기하라고 하셨는데요. 필기를 하면서도 항상 갖고 있던 의문은 "왜 같은 뜻의 단어를 여러 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기묘하죠, 왜 같은 걸 여러 개 만들었을까요? 영어라는 언어가 처음부터 시험을 보기 위해 만든 것도 아닐 텐데요.

“can = be able to”를 같은 뜻이라고 배웠으니, 아무 생각 없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can이 좋아"하면 그냥 “can”을 쓰다가 너무 많이 썼나 싶으면 “be able to”로 쓰는 식이었죠.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제가 어휘력이 좋은 사람인 척 채점자에게 어필하기 위해 두 가지 모두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를 모르고 단순히 “can”을 “be able to”로 기분에 따라 대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채점자는 저의 부족한 어휘력에 깜짝 놀라 오히려 감점처리 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Can”은 “be able to”와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 다른 점이 있으니 공존하는 겁니다.

---

저는 “can”과 “be able to”의 차이를 처음 알고 나서 그 즉시 책상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달려가 기쁨과 분노에 소리를 지른 사람입니다. 단지 단어 하나의 차이를 알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어휘를 배우면서 갖고 있던 의문점 "왜 같은 뜻의 단어를 여러 개 만들었을까?"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어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언급했듯이,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이 사실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책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내용과도 연결된 얘기일 겁니다.

또한, "영어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다"라는 설명을 통해 언어는 살아 움직인다는 내용을 상기시켜 줄 겁니다. 즉, 매일 새로운 단어가 태어나고 오래된 단어는 사라지는 과정을 거치며 진화하기 때문에 맞던 것이 틀리거나, 틀리던 것이 맞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can”과 “be able to”가 어떻게 다르며, 왜 둘은 결국 공존하게 된 건지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죠.

---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저는 “can = be able to”라고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인 선생님이 저에게 크게 잘못 가르쳤다고 하기 힘든 것이, 그럼 이런 실수를 원어민은 안 할까요? 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구분 없이 사용하게 되니, 사전에서도 이제는 거의 “can”은 “be able to”와 같은 뜻으로 혼용된다고 설명하죠.

그러나 “can”과 “be able to”는 완전히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만약, 정확히 같은 단어가 2개 있다면 둘 중 하나는 분명 존재 이유가 없어 사라졌을 겁니다. 뜻이 비슷하더라도 느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can”은 흔히 조동사, 즉 동사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be able to는 조동사가 아닙니다. “be” 동사에 “able” 형용사가 붙어 다니는 겁니다. 뜻이 비슷하여, 둘 다 “~할 수 있다”로 배우기 때문에 혼동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확실히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

또한, “can”은 “be able to”보다는 확실히 단어 길이도 짧아 사용하기 편하고 일반적으로 평소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므로 우리가 더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반대로 “be able to”는 우선 단어 길이가 3단어로 늘어납니다. 단어 길이가 길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더 formal 하게 들리고 우리의 눈과 귀에 더 집중을 받아 강조됩니다. 그래서 “be able to”를 “can”만큼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Can”이 사용된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I **can** dance."

"I **can** speak English."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평소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한번 할 수 있게 되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언제든지 가능한 능력에 대해 사용합니다.

반대로 “be able to”는 좀 더 일시적(a single event)이고 조건이 필요한 일에 대해 주로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못했던 일이 이제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어 할 수 있게 된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래 트위터 내용과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겁니다.



출처: Twitter

성 소수자 결혼이 연방법에 통과되어 합법이 된 날 올라온 트윗맨션입니다. 연방정부 법(Federal Law)에서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동성 결혼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니 이때는 can보다 “be able to”가 더 적합하다고 느껴집니다. \*(동성 결혼 연방법 통과:same sex marriage became legal since June 2015).

---

“Be able to”가 사용된 예문을 보죠.

"The fire spread through the building quickly,  
but everyone **was able to** escape."

해석해 보면, 건물에 불이 났지만 모두가 대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다음번에도 불이 난다면 모두가 이번처럼 대피할 수 있을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be able to”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죠. 그 당시, 그 조건에선 가능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이런 경우 “be able to”는 거의 “manage to”의 느낌으로 사용 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조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한” 느낌이 드는 “can/could”보다는 “be/was able to”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판단 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be able to”를 일시적이고 조건이 필요한 일에 대해 사용하다가 익숙해져서 평소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이런 경우 “can”으로 표현해보시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테니스를 전혀 못 치다가 배워서 마침내 칠 수 있게 되었다면 “be able to”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겠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테니스를 치는 것이 일상적인 능력이 된다면, “can”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이렇듯 상황과 느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언어의 “맛”입니다.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또 다르고 하는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변화무쌍함이 언어의 장점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can”과 “be able to”는 회화에선 자주 혼용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되는 기본 룰은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해 왔던 것처럼, 이번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혼용하는데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 영어에서 애매한 부분을, 흔히 뉘앙스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도 잘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것과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아는 만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땐 꼭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우는 이유가 될 겁니다.

---

잠깐, 아는 만큼 보이고 느낄 수 있다는 말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주방장은 자신이 만든 음식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손님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때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모르면 맛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음식인데 들어간 재료를 알고 있어야 맛이 느껴진다. 이상하신가요? 이것이 "인지적 맛"(\*cognitive factors affect taste)이라고도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감각에 약점이 있는데요. 미각뿐 아니라, 후각과 시각에서도 나타납니다.

맛이라는 것이 존재하니 입으로 들어가면 감각기관이(sensory response) 자동으로 작동하여 맛이 다 느껴질 거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와인의 경우도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언제 어떤 포도로 만들어 어떤 맛이 강한지 설명을 들어야 그 맛이 정확히 느껴집니다. 설명 없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경우 와인에 대한 평점이 가격이나 브랜드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실험 결과도 있죠.

---

영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그냥 외우라고 시키는 것은 마치 주방장이 손님에게 음식을 깊이 음미하려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무례한 겁니다.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방법으로 먹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몰라서 아무렇게나 먹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영어 역시 자신의 방식대로 드실 수 있겠지만, 재료 각각의 맛을 알고 있어야 영어의 전체적인 풍미가 좋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영어가 더 재미있어지기 때문이죠.

---

이제는 “can”과 “be able to”의 기능적인 차이를 보죠.

“will”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역할, 즉 동사를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 동사를 떠나 다른 위치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면, “be able to”는 좀 더 자유롭게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죠. 아래 예문은 반드시 “be able to”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I wanted to **be able to** swim when I was in Canada." (O)

"I wanted to **can** swim when I was in Canada." (X)

"I will **be able to** cook for my friends." (O)

"I will **can** cook for my friends." (X)

위에 예문에서처럼 “can”은 “want to can swim”처럼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동사는 역시 동사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니까요. 그리고 같은 조동사 역할을 해주는 것이 겹치는 경우에도 “will can cook”이 아니라 “will be able to cook”처럼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능적인 차이 때문에 “be able to”가 “can”과 함께 존재해야 우리가 더 편하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

“can”은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부분 표현하므로 따로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be able to”가 특별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므로 이 부분을 좀 더 알고 나면, 나머지 경우는 모두 can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단순하게 만들 수 있겠죠.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조동사는 규칙이나 대략적인 의미를 한번 배웠다고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그 뉘앙스의 차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동사의 사용은 문장의 내용을 변경하기보단 다양한 상황에 맞게 문장의 강도/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이죠.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알기 위해선 다양한 문장과 배경을 통해 보고 듣고 사용해 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기는 영어적 센스가 적절한 조동사의 사용을 결정하게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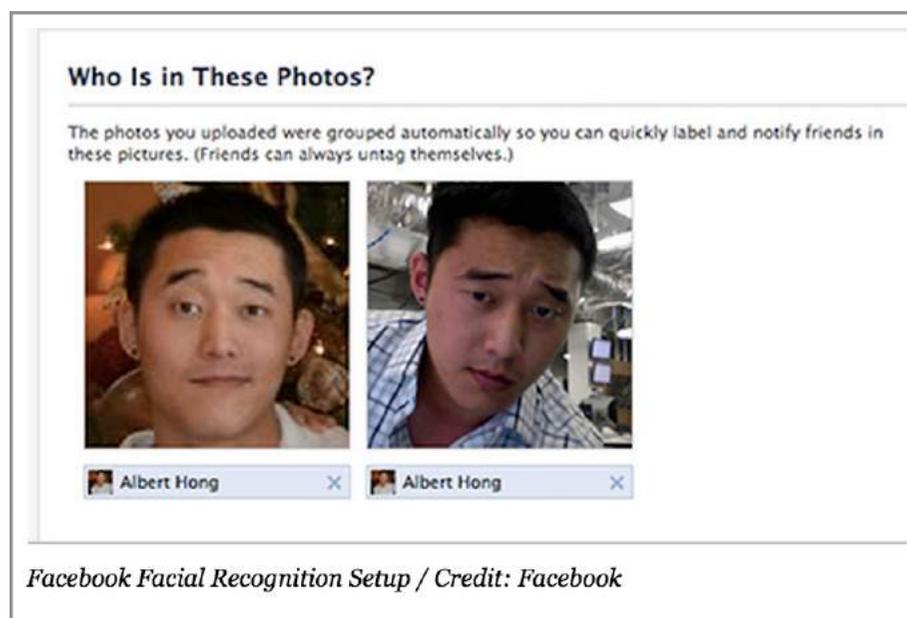
# can & be able to

## Review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동사를 배운다는 건 다양한 배경(context)을 통해 입체적으로 입력(다양한 감각과 토픽을 통한 학습)된 정보와 경험을 쌓아야 그 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뷰섹션을 통해 좀 더 깊이 “can”과 “be able to”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 볼 겁니다.

Forbes 온라인 기사 하나 보고 가죠. 이제 Facebook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적용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be able to V”와 “can”의 선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제목: “Facebook Is Now Able To Recognize You Without Even Seeing Your 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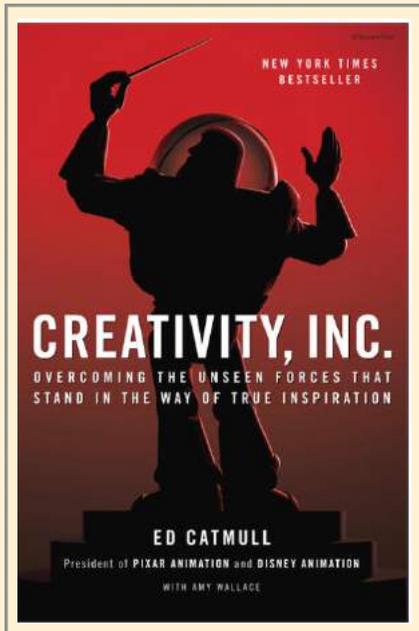
출처:Forbes

Privacy on Facebook has always been controversial and its latest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will not be an exception. Facebook's artificial intelligence team is testing out an al-

gorithm that can recognize people in photos even if they are not looking at the camera.

According to New Scientist, the algorithm is able to identify people by reviewing hairdos, clothing, postures and body shapes. Facebook's h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Yann LeCun used CEO Mark Zuckerberg as an example of how the algorithm recognizes fashion preferences since he is known for always wearing a gray T-shirt.

Pixar에서 “Toy Story”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며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온 Ed Catmull의 저서, “Creativity, Inc” 중 Steve jobs와 함께 디즈니와의 협상 과정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출처: Amazon

Steve predicted that as soon as Toy Story came out, Eisner would try to renegotiate our deal and keep us close, as a partner. In this scenario, Steve said, he wanted to be able to negotiate better terms. Specifically, he wanted a 50/50 split with Disney on returns—a demand, he pointed out, that also happened to be the moral high ground. In order to fulfill these terms, however, we would have to be able to put up the cash for our half of the production budgets—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And to do that, we would have to go public.

Excerpt From: 20ebooks. “Anon.” ebook.

“Creativity, Inc”의 난이도: 중상 8.8 /12 (미국 고등학교 1학년 수준)

[해당서적 정보 및 샘플 다운로드 클릭](#)

---

개인적으로 Ed Catmull의 Stanford Business school 강연을 가장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은 2007에 기록된 것으로 앞서 소개된 Creative, Inc 책이 나오기 전입니다. Ed Catmull은 스타워즈를 제작한 조지 루커스와 함께 일하면서, 디지털 영상과 오디오 효과 등을 담당한 인물입니다. 그는 Stanford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으며, 자신의 석박사 연구 프로젝트로 사람의 손을 디지털 그래픽으로 모델링하는 작업을 주로 했는데요. 당시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그래픽이라 전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기술이 가져다줄 잠재적 성장과 파장을 보고 오랜 기간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영상에선 Pixar에서 직원들이 창의적인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독려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Ed Catmull은 "모두" 그리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회사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teve Jobs와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

“can & be able to” 형태를 언급하는 부분은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미리 편집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자막>

1. ~you must be organized; things must happen in order. You **can** lose control. But communication needs to **be able to** happen between anybody in the company at any time.

2. So nobody else was funding it in this industry except for George (Lucas). So I **was able to** go out and hire the best people in each one of these areas.

\*참고

PDF 버전인 경우 유튜브로 연결된 영상을 보게 됩니다.

Kindle HD, Apple 제품의 경우 인터넷 연결 없이 바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해설>

1. ~you must be organized; things must happen in order. You **can** lose control. But communication needs to **be able to** happen between anybody in the company at any time.

“~조직에선 모든 일이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컨트롤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선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순차적 이 아니라 직급과 장소 시간에 관계없이 이루어 져야 한다)”

- “You **can** lose control”에서 “can”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쓰임.

- “communication needs to **be able to** happen”에선 “need to” 뒤에서 기능적으로 “be able to”가 “can” 대신 사용 됨.

2. So nobody else was funding it in this industry except for George (Lucas). So I **was able to** go out and hire the best people in each one of these areas.

“~, 누구도 이쪽 산업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죠지(루카스)에게 펀딩을 받아서 저는 이러한 분야(디지털 하이테크 특수효과 관련 분야) 각각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 “그때는 가능했다”는 느낌으로 “be able to” 사용됨.

---

영상 링크:

[www.youtube.com/watch?v=k2h2lvhzMDc&list=WL&index=85](http://www.youtube.com/watch?v=k2h2lvhzMDc&list=WL&index=85)